

<동정자료>

박선호 차관 “미세먼지 줄이는 청정 숲, 우리 손으로” 제74회 식목일 맞아 미세먼지 저감효과 우수한 편백나무 700여 그루 식재

□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세종시 전의면 원성리 산 20-4 일대 임야 약 0.5ha에 편백나무* 700여 그루를 심는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.

* 식물들 중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발산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

○ 올해 식목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일곱 번째 실시하는 행사로 박선호 1차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.

□ 박 차관은 “오늘 우리가 하는 나무심기 행사는 단순한 나무심기가 아니라,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녹색 공간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그 가치를 향유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뜻깊은 행사”라고 강조하며,

○ “숲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으로, 오늘 심은 나무들이 국토 재창조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소감을 밝혔다.

○ 아울러 “우리 부는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부처로서 건설공사현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강화, 친환경차 보급 확대, 관용차량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이용 숭선수범 등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2019. 4. 1.

국토교통부 대변인